

# 하상 주보

 버지니아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주임신부: 배하정 다니엘  
사도회장: 허진 세바스찬  
연령회장: 홍익훈 요셉  
(703-966-8206)  
사무실: 703-968-3010  
팩스: 703-968-3013  
주소: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이메일: sthasang@gmail.com



미사안내 (Mass Schedule)

주일미사	* 8:00 AM * 10:00 AM (교중미사) * 2:00 PM (학생미사) * 5:00 PM (청년미사)		
토요일저녁 주일미사	* 7:30 PM		
월, 목, 토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	

“받은 만큼 되돌려 드리는 해”

## 2026 사도회장 인사말씀

+찬미 예수님

먼저 저를 믿어 주시고 이 봉사의 기회를 주신 배하정 다니엘 주임신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와 함께 봉사해 주실 회장단 위원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점도 많고 실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신자분들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많은 협조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2018년에 회장단에서 총무로 봉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새신자 교리반에서 회장단을 소개하며 함께 교리를 들었는데, 그중 유독 기억에 남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어린 시절의 저에게 교회는 ‘무조건 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야단을 치시든 설득을 하시든, 교회는 반드시 가야 한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심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1974년, 제가 아홉 살이 되던 해에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가톨릭 사립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수녀님들 밑에서 공부하며 좋은 기억도 많았지만, 또 하나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수업 전에 아이들이 주말 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누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누구 생일파티에 갔는지” 같은 대화를 나누곤 했는데, 저는 그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소외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한국 학생이 저 혼자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너희는 여기 교회에서 친구들이 있겠지만, 나에게겐 한인 가톨릭 교회가 있고, 나를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어.’ 그곳에는 맛있는 음식도 있었고, 저는 CYO 회장도 해 보고, Car Wash 행사도 하고, 부활절에는 계란에 색칠도 하며 즐겁게 활동했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 저를 받아주는 곳이었고, 재미있는 곳이었으며,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작은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톨릭 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실제로 마주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유대교 신자들, 그리고 종교를 믿지 않는 친구들과 교수님들을 만나면서 제가 살아오던 세상이 얼마나 좁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신앙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교회와도 조금씩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학업을 마치고 로스쿨을 졸업한 뒤, 펜실베이니아의 한 시골 지역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판사님을 만나 많은 것을 배우며 일은 잘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많이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한인 변호사도 저 혼자였고, 무엇보다 제 삶이 제자리에서 빙빙 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보이지 않아 많이 지쳤었습니다. 그 무렵 법원 근처에 가톨릭 대학교와 그 옆의 성당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성당 앞으로 향해 미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미사에 들어서는 순간, 제 마음이 놀람도록 편안해졌고 큰 위로를 받았음을 느꼈습니다. 마치 교회가 두 팔로 저를 감싸 안아 주는 것처럼 그동안의 걱정과 불안이 스르르 녹아내렸습니다. 그때 교회는 제게 정말로 필요한 위로를 주었습니다.

(2면에 계속)



## 복음묵상의 향기 '말씀' 하느님과 만나는 '의로움'

요한의 세례는 죄를 씻는 일이었고, 죄를 씻는 것이 하느님을 만나는 일로 이해됩니다.

죄를 씻기 위하여 우리는 죄를 찾아내려 애씁니다.

고해소 앞에서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되돌아보는 일은 꽤나 아픈 일입니다. 고백 하건대, 지난 과오를 진정으로 뉘우쳐서 아프기보다 그 과오 때문에 부끄러운 자신을 마주하는 것이 더 아픕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서는 죄가 없으시지만 세례를 받으십니다.

오늘 복음이 말하는 예수님의 세례는 '모든 의로움'을 이루는 일입니다. 예언자 시대부터 '의로움'은 하느님과 제대로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그 만남은 대개 계층 간에 벌어지는 갈등의 자리에서, 권력의 다툼 안에 희생된 약자들의 자리에서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선택하시고 집중하시는 곳은 아픔과 슬픔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에서, 신앙인들이 일상에서 만나고 웃고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되돌아봅니다. 의로움을 이루려고 만나는 자리가 있을 수 있고, 죄를 씻기는커녕 서로의 탓을 곱씹느라 죄 속에 허덕이는 피폐한 영혼들을 맞닥뜨리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끝은 이렇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사야서에 따르면 그 아들은 다른 이의 죄를 대신 짊어져도 말 한마디 없이 죽어 가는 고난받는 종이었습니다.

다른 이를 위하여 대신 죄를 짊어지는 희생을 실천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서로에게 죄를 짊어지우는 일만큼은 줄여야겠습니다. 의로움은 특정한 상황에서 이를 이루고야 말겠다는 굳은 결심과 실천으로 실현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평범한 일상에서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자신을 비워 내고, 내어 주고, 참아 주는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박병규 요한 보스코 신부

## [금주의 교리 상식] 주님 세례 축일이란?

주님 세례 축일은 예수님께서 서 요르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음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부활 시기가 성령 강림 대축일로 완성되고 마감되는 것처럼, 성탄 시기를 마감하는 축일로 1960년 `주님 세례 축일`을 따로 설정하였습니다. 주님 공현 대축일을 주일에 지내는 경우 그 날이 1월 7일 또는 8일이라면, 주님 세례 축일은 그 다음 주일이 아니라 하루 뒤인 월요일에 지냅니다. 올해 주님 공현 대축일이 6일이었기에 다음 주일인 오늘을 주님 세례 축일로 지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를 씻는 세례를 받으신 일은 죄로 물든 인간과 맺은 유대 관계를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공생활을 시작하는 장엄한 순간, 세례를 통해 당신을 낮추시는 겸손을 보여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연중 시기를 새 마음으로 맞이합니다.

## 2026 사도회장 인사말씀

(1면에 이어서)

이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교회는 또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제 아이들에게 신앙의 씨앗을 심어 주는 중요한 장소가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만약 같은 질문을 신자분들께 드린다면 각자의 삶과 신앙의 길은 달라도 “왜 교회가 나에게 필요한지”, “왜 교회가 소중한지”에 대한 답은 결국 같을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성당에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귀한 시간을 쪼개어 보수도 없이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어떤 선배님께서 제게 “회장단은 봉사자를 위한 봉사자다” 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저는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많이 부족하고 실수도 있겠지만 신자분들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많은 협조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도회장 허진 세바스찬

## 라파엘 볼링 소셜



지난 1월 8일 목요일 저녁, 본당의 영어권 청년단체 라파엘이 볼링을 치며 웃음 가득한 친교의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총 18명이 함께한 이날은 새해의 첫 이벤트이자 곧 개강을 앞둔 대학생 멤버들이 학교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행사였습니다. 라파엘 회장 이충원 베드로는 함께 해준 모든 청년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함께 한 6명의 대학생들과 부득이 참여하지 못한 라파엘의 다른 학생들이 새학기에 하느님의 은총 속에 학업을 잘 마치고 방학때 건강히 다시 만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본당 신자분들이 기도중에 학생들을 기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라파엘 청년회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이충원 베드로 (703-507-9936)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공지사항

### 1. 주님 세례 축일 모임 안내

- 1월 11일 (일)
  - 단체장 회의 (오전 11시 30분)
  - 복사단 회합 (오전 11시 30분)
  - CCD 주일학교 성탄제 (오전 11시 30분)
  - 꼬미시움 월례회의 (오후 1시)
- 1월 16일 (금)
  - 바오로 자매 모임 (저녁 8시)
- 1월 17일 (토)
  - 33일 봉헌자 후속 모임 및 파티마 신년 모임 (저녁 8시 30분)

### 2. 동전 모으기 저금통 봉헌

- 대림 시기 동안 나누어 드린 저금통을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선물을 드렸듯이 우리들의 정성을 모아 구유 앞에 놓으시면서 아기 예수님께 선물로 드리세요. 저금통은 오늘까지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3. 주일학교 CCD 첫 영성체 등록 안내

- 2026년 첫 영성체반 등록을 받습니다.
- 대상 : 3학년 이상 주일학교에 등록된 학생
- 등록 : 1월 11일 (일)까지  
2시 미사 후 하상관 교무실
- 교리 시간 : 2026년 1월 21일 (수) 저녁 7시  
(매주 수요일 저녁 7시-8시 30분)
- 문의 : 임형준 이레네오 교감 703-624-8196

### 4. 주일학교 CCD 성탄제 (Christmas Open Festival)

- 일시 : 1월 11일 (일) 10시 미사 후
- 장소 : 친교실
- 본당 주일학교 CCD 학생들이 준비한 성탄 축제 공연 (연극, 노래, 춤)에 교우분들을 초대합니다.

### 5. 33일 봉헌자 후속 모임 / 파티마 신년 미사 및 모임

- 일시 : 1월 17일 (토) 저녁 7:30 미사 봉헌후
- 장소 : 친교실
- 33일 봉헌을 하지 않았더라도 성모님과 함께 새해를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이종석 루가 703-254-7963

### 6. 어버이 성서 모임 신약 성서 사십 주간

- 2026년 1월 21일부터 시작하는 온라인 신약 성서 사십주년을 함께 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 일시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목요일 저녁 8시
- 신청 마감 : 2026년 1월 11일
- 문의 : 오재노 로사 703-772-7275



### 7. March for Life (생명 수호 행진)

- 일시 : 1월 23일 (금) 오전 11시 미사 후  
오후 12시 성당 출발 (점심 제공)  
(이날 저녁 미사는 없습니다)
- 문의 : 한상준 프란체스코 703-439-8992

### 8. 베드로 총회 안내

- 일시 : 1월 25일 (일) 저녁 6시
- 장소 : 친교실
- 2026년 베드로 총회를 할 예정이니 베드로회 형제, 자매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조한승 미카엘 (202-235-6918)

9. 텃밭 가꾸기 강의

- 일시 : 1월 25일 (일)  
오전 11시 30분-오후 12시 30분
- 장소 : 친교실 B-1,2
- 주제 : 실습을 위주로 한 텃밭 가꾸기
- 강사 : 원웅식 요셉 (540-788-1127)
- 울릉도 호박 씨앗, 한국산 백일홍, 아삭이 고추 씨앗 무료 배포

10. 교무금 카드 발송 안내

- 2026년 교무금 카드는 세금 공지 납부서와 함께 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납부 금액이 다르거나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헝가리-오스트리아-체코-폴란드 성지순례

- 순례기간 : 2026년 5월 4일 (월) ~ 5월 15일 (금)  
(총 11박 12일)
- 비용 : 일인당 US \$3,800 (항공료 포함)
- 접수기한 : 2026년 1월 25일(일)까지, 선착순 30명
- 접수 : 사무실에 오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2. 기도해주세요.

- 2026년 1월 25일(일)은 본당 신부님 사제 수품 26 주년입니다. 사제 수품 축일을 맞아 본당 교우분들의 정성을 모아 영적 예물을 드리하고자 합니다.
- 주보대에 있는 영적 예물 용지에 기도 약속을 적으신 후 영적 예물 봉헌통에 넣어주세요. 기도 약속 용지는 1월 18일(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3. 보좌신부님 부임

- 원종권 편파노 신부님께서 1월 27일(화)에 본당으로 오십니다. 기도 가운데 기억해 주세요. 착한 목자로 우리와 함께 행복하고 기쁜 사목활동 되었던 좋겠습니다.

14. 날씨에 관한 본당 (알링턴 교구) 지침

- 질병이나 악천후 (홍수, 허리케인, 폭설)로 인하여 미사 참석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미사 참례 의무가 면제된다. 대신 교회는公所 예절, 기도, 성서 읽기, 선행을 바칠 것을 권고한다.
- 우리 본당은 악천후와 관련해 Fairfax County Public School 지침을 따르며, 이에 따라 건물 사용 및 행사, 활동이 취소된다. 하상관 체육관 사용도 이에 따른다. (참조: [www.fcps.edu](http://www.fcps.edu))
- 본당의 미사는 항상 정해진 시간에 봉헌되며 악천후로 인해 미사 참례의 의무는 없지만 부득이 미사 참례를 할 경우에는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 이 진다.
- 악천후로 인하여 바닥이 미끄러운 날은 굽이 높은 신발이나 미끄러지기 쉬운 신발은 절대로 신지 않는다.

15. 성탄 제대 꽃 봉헌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성탄 제대꽃을 봉헌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봉헌금은 \$5,610입니다.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2026년 1월 4일 (주님 공현 대축일)

봉헌금 -----	\$9,156.00
대축일 봉헌금 -----	\$7,110.00
교무금 -----	\$16,820.00
교무금 (신용카드) -----	\$5,305.00
감사 헌금 -----	\$12,630.00
온라인 봉헌 -----	\$6,850.00
합계 -----	\$57,871.00

KACM TV 하이라이트

성 정바로로 성당 제공      Cox ch 30, 830  
Fios ch 30

2026년 1월 15일(목) 오후 5시 - 6시  
2026년 1월 16일(금) 저녁 8시 - 9시  
2026년 1월 18일(일) 오전 6시 - 7시

1. 주일미사강론
2. 가톨릭 뉴스
3. 성지 순례: 코카서스 3개국
4. 바이블 갤러리: 카나의 혼인잔치

교중미사 예물봉헌

01/11 이번주	프린스 윌리엄스
01/18 다음주	우드브릿지

Find a Mass near me



여행지에서 가장 가까운 성당과 미사시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www.masstimes.org](http://www.masstimes.org)

휴가 중에도 주일을 지키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